

사람과 기술, 대덕과 사람

DAEDUCK Story

소식지 대덕스토리 12월호

Vol. 40



발행일 2022년 12월 15일

Publis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인사총무팀 교육그룹

Editor 채지혜 프로

T.031-8040-0643 F.031-8040-8082

| 본부장 메시지
| 2022년을 보내며

| 2022 대덕전자 이슈
| 즐거운 대덕생활

| 추천도서
| 건강한 내일

디자인 귀기울

www.daeduck.com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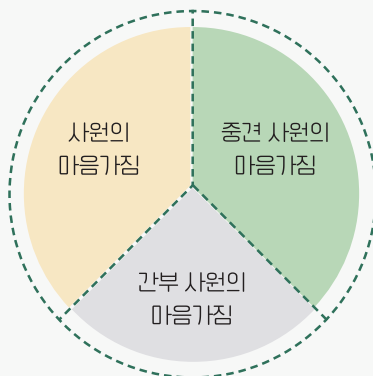
직장인에게는 업무가 예술이며 문학

1.故김정식 회장님의 철학



2. 마음가짐 (마쓰시타 코노스케의 철학)

✂️ 사원의 마음가짐 ✂️



사원의 마음가짐

-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견사원의 마음가짐

- 회사의 사장처럼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 단기 수익보다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아야(열정/고집)

간부사원의 마음가짐

-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하직원은 전부 간부의 잘못이다.
- 잘못된 업무결정에 철저하게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부하직원의 사기를 꺾지 않고, 회사의 위험에 몸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경영의 마음가짐 ✂️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하라
안 그러면 사원의 인생이 불행해진다.

• 적재적소 경영 • 업무에 의미부여

‘우리 직장인에게는 업무가 예술이며 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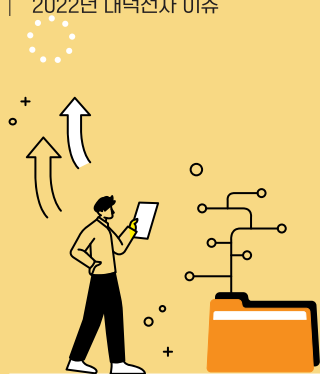
우리는 우리의 작품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단련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열정을 품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일이 하찮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꾸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일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그 일을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완벽하게 잘 해내면,

주위에서는 결코 여러분을 하찮은 일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 지금 안하면 언제하라, 내가 안하면 누가하라 ”



한눈에 보는 대덕전자의 2022년





BGA YE그룹 최솔 프로가 추천하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 저 / 인플루엔셜 / 2021.04.28

수많은 실패에 좌절하고 지친 분들께 이 책은 그 어떤 말보다도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23년도에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그것이 소소한 목표든, 거창한 목표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거리

해당 도서에서 주인공은 본인의 삶에 후회와 좌절을 느껴, 자살 시도를 한 뒤 정신을 잃고 자정의 도서관에 방문하게 된다. 자정의 도서관에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하지 못해 후회하던 다양한 삶을 살아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원하는 무언가를 선택할 용기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삶이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감

이 책을 읽으며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며 목표를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에서와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부자로서의 삶, 더욱 건강한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마주하게 되는 선택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루지 못할 목표는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독서습관을 만드는 방법

요즘 우리의 하루를 보면,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그만큼 책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책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독서 습관 만들기에도 도전해 보면 어떨까.

1

하루 15분만 부지런해져라

고작 15분이다. 하루에 15분만 일찍 일어나 이 시간은 무조건 책을 읽도록 한다. 처음부터 책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일어나서 읽기 쉬운 잡지, 사진집 등 텍스트가 있는 무엇이든 읽는 습관을 들이자.

2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라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에세이에서 '지하철 이용 시간과 독서량이 비례한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 시간만 활용해도 책을 읽을 수 있다.

3

퇴근 후에는 스마트 폰을 내려 놓아라

우리의 독서를 방해하는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이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서 현관에 스마트폰 자리를 마련해 두고 아예 놓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까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의외로 다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4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녀라

읽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읽고 싶거나 시간이 남을 때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준비해서 다니는 것이 좋다. 가까이 있다면 펼쳐볼 가능성도 커진다.

5

서점에 놀러 가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서점 산책을 하자. 서점에 가면 구경할 것이 많다. 책을 사지 않더라도 가서 여러 분야의 책을 보면 궁금한 책이 생기게 마련이다. 흥미로운 책을 만나면 독서가 더 즐거워진다.

2022년과 헤어질결심

한 해를 마무리 하며

2022년의 마지막 달이다.
정신 없이 지나간 2022년을 마무리 하며
+ 대덕전자 사우들은
어떤 한 해를 보냈는지 들어 보았다.



**내년에는
올해의 아쉬운 부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MS 제조그룹 김상기 프로

Q 2022년을 보내며 아쉬운 점은?

A B3센터 OFF로 인하여 추진 중인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우며, 내년에는 올해에 아쉬운 부분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Q 2022년을 보내며 스스로 뿌듯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점은?

A 22년에 계획했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어 뿌듯하고, 뜻하지 않게 혁신인으로 선정되어 기쁩니다.

Q 2022년을 무사히 보낸 스스로와 고마웠던 분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A 22년부터 제조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업무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항상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이상욱프로님에게 너무 감사 드리고, 또한 제 주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업무혁신그룹 김종헌 프로

Q 2022년을 보내며 아쉬운 점은?

A 2022년 목표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아이템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 못 한점

Q 2022년을 보내며 스스로 뿌듯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점은?

A 연초에 계획한 목표에 꼭 달성하고자 했던 사안을 달성함 - Post 합리화

Q 2022년을 무사히 보낸 스스로와 고마웠던 분에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A 2022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없었지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일상이 되었네요. 그럼에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생활이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여름 휴가이니, 단풍 구경이니 일상에서 하던 것들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가족과의 추억사진 한 장 간직하지 못했네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그냥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하는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창하게 목표만을 세우고 미루고 있는게 아닐까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얼마 안 남은 2022년 마무리하는 12월 가족과 함께 추억사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즐긴다

BGA PSR 강정훈 기감의 아이언맨 도전기



축구선수에게 꿈의 무대는 월드컵이 있듯이 철인3종인에게도 꿈의 무대가 있습니다. 바로 **‘코나대회(WORLD CHAMPIONSHIP IRONMAN)’** 인데요.

지난 10월 6일 하와이에서 3년만에 열리는 대회에 참여해 완주하고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우리 아들과 함께 다녀와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경비에 살짝 부담이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가는 만큼 꼭 완주하리라는 다짐으로, ‘내가 그동안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과 운동을 즐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를 완주한 경험으로 저는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와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항상 즐기며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몫을 다 해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것을 알게 해준 이 멋진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우리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더 기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화려한 꽃보다 진한 향기가 남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벌이 오기 보단 한번 찾은 벌이 잊지 못 할 꽃이 되는 것.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도전해서 못 잊을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바람이, 너무 건조해!

건조한 겨울, 촉촉함을 유지하는 방법

가렵고 건조한 겨울 피부

찬 바람이 불어올 때, 난로 앞에 모여 앉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건조하지 않은 사람이다.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난방기까지 더해진 겨울은 피부를 마르고 갈라지게 만든다. 피부 건조증과 가려움증은 기본이고, 아토피 피부염도 조심해야 한다. 예전에는 아토피가 어릴 때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사라지는 증상이었으나 최근에는 만성재발성 피부염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와 얼굴, 귀, 겨드랑이, 가슴 등에 발생해 장시간 지속되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지루성 피부염과 건선 역시 겨울철 건조한 기후에서 악화된다.

한겨울 피부 적적



겨울에도 촉촉하게 살아요~



적절한 실내 습도 Yes

여름이나 겨울이나 적절한 실내 온도가 중요하다.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는 18~21℃이고 실내 습도는 4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낮아진 실내 습도는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간다.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습기를 활용하고 실내에 식물을 키우거나 수족관을 배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때 미는 목욕은 No!

날씨가 추워지면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 있다가 나와 때 미는 목욕이 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때 미는 목욕은 피부 건조에 좋지 않다. 피부 가장 바깥쪽의 각질층은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각질은 자연적으로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에 남아 하얗게 일어난다. 이 때를 때수건을 이용해 밀면 각질층의 대부분이 제거되며 피부 보호 기능이 떨어진다. 때 미는 목욕 보다는 샤워를 권장하며 샤워 직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술과 카페인도 No, No!

연말에 유독 더 많이 마시게 되는 술도 피부 건조와 관련이 있다. 카페인과 술,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몸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가게 한다. 수분이 지속적으로 빼앗나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Quiz

40호 퀴즈

사진 속 물건은 무엇일까요?



사진 속 물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겨울에 길가다 만나면 반가운 것이죠. 기지개도 한번 켜 겸, 스트레칭도 한번 할 겸,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컵세트(2p)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보담당자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취미소개, 도서후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보 담당자 : 교육그룹 채지혜 프로(coco@daeduck.com)

**39호
당첨자**
외주조달그룹 김상호 기사
FCB개발1그룹 진보람 프로
BGA QC-GATE 최설 기사
FVI그룹 조수연 프로
SI 설비그룹 이두환 기장

**39호
퀴즈 정답 :**
칫솔

